

지방 건설업계 고사 위기

〈枯死〉

광주·전남 석달새 10곳 부도 10만세대 미분양 '사상 최대'

올들어 광주·전남지역 등 지방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최악의 미분양 사태가 이어지면서 지방 중견건설사가 줄줄이 도산하는 등 지방 건설업계의 붕괴가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미분양 폭증과 건설사의 수익악화 등 건설경기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최근 거림건설의 부도와 대주건설의 검찰 조사 등 악재가 잇따르면서 '건설발 경제악화'에 대한 우려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19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최근 지방의 중견건설사를 중심으로 자급난이 커지면서 11월 한 달간 부도처리된 건설업체가 13곳에 달했다. 광주·전남의 경우 지난 9월과 10월에 8곳의 건설업체가 부도처리된 데 이어 이달 들어서만 다시 2곳의 부도업체가 발생하고 있다.

또 지난 13일에는 전남지역 중견건

설업체인 거림건설(시공능력평가 275위)을 비롯, 충남의 KT건설(131위), 인천의 효명건설(321위) 등이 한꺼번에 부도처리되면서 연쇄부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의 부도는 이들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업체나 금융권의 악화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실제 올들어 부도처리된 전문건설업체는 광주·전남 10곳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총 129곳에 달한다.

또 전남업체인 거림건설의 경우 대선건설 등 자회사와 함께 실제 발행한 어음 규모가 5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제2금융권 등 지역경제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업계는 최근 그룹총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주건설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분양·시공중인 아파트만 1

만세대에 달하는 중견업체가 무너질 경우 해당 기업과 협력업체, 금융권, 입주인 등 선의의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한 데다 자칫 그 불똥이 지역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역 건설업계가 궁지로 몰린 것은 각종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가 사상 최대치로 불어나는 등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주택은 9만8천235세대로 한 달새 7.1%(6천521세대) 늘었다. 이는 지난해 말보다는 33.2%(2만4천464세대)나 급증한 것으로, 지방 소재 아파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광주는 지난달 말 현재 미분양 아파트가 9천215세대에 달하며, 이 가운데 준공후 미분양도 2천583세대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 양극화가 극에 달한 만큼 부동산 정책을 지역별 수급특성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강운산 연구위원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지방 건설경기가 붕괴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각종 부동산 규제를 지역별 수급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檢 '김경준 판도라' 정밀분석

이명박 최측근 소환...에리카김 '10kg 서류' 보내

BBK 주가조작 사건과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연루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최재경 부장검사)은 19일 이 사건 핵심인물인 김경준(41)씨를 나흘째 불러 조사를 벌이는 한편 이 후보의 최측근 인사인 김백준, 이진영씨를 극비리에 소환하는 등 관련 인사들을 참고인으로 동시 다발 소환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또 김씨의 누나인 에리카 김이 한국으로 대량의 관련서류를 김씨 법정대리인인 박수중 변호사로부터 넘겨받아 조사가 들어갔다.

한편, 정치권은 이날도 이번 일주일이 한 달 남은 대선의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사활을 건 공방전을 주고 받았다. 신당과 무소속 이회창 후보 측은 판세 역전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보고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씨의 연루 의혹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비상체제에 들어가 한나라당은 당력을 총동원해 공세에 대응하는 한편 검찰에 대한 압박도 병행했다.

전날 김씨를 구속한 후 검찰이 집중 조사하는 것은 그동안 제기된 이 후보의 연루 의혹. 검찰은 이날부터 이 후보가 김씨와 함께 BBK 등을 경영하며 씨다스의 자금 190억원을 끌어들이며 염서넬벤처스 주가조작에 가담했는지, 이 후보의 형과 처남이 대주인 씨다스를 실제 소유하고는 재

산신고 때 누락시켰는지 등이다. 검찰은 또 수사팀은 김씨가 미국에서 갖고 와 이 후보와의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물이라며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 각종 자료에 대해 대검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협조를 얻어 진위 및 조작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또 김씨의 누나인 에리카 김이 한국으로 대량의 관련서류를 김씨 법정대리인인 박수중 변호사로부터 넘겨받아 조사가 들어갔다.

한편, 정치권은 이날도 이번 일주일이 한 달 남은 대선의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사활을 건 공방전을 주고 받았다. 신당과 무소속 이회창 후보 측은 판세 역전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보고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씨의 연루 의혹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비상체제에 들어가 한나라당은 당력을 총동원해 공세에 대응하는 한편 검찰에 대한 압박도 병행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수 엑스포 결정 D-7



19일 여수시청 광장에서 열린 '세계박람회 필승유치단 출정식'에 참가한 여수시민들이 여수박람회 로고와 BIE(세계박람회기구) 회원 국가 국기를 흔들며 유치단을 환송하고 있다. /여수=최현배기자 choi@

'파리의 영광' 외교에 달렸다

민관 총력 외교전

정부와 전남도, 민간단체 등이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에 세계박람회기구(BIE)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막바지 총력 외교전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3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서울에 상주하는 BIE 회원국 대사들을 삼

청동 공관으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며 2012년 여수엑스포 지지를 요청했다.

정몽구 여수세계박람회 명예유치위원장(현대·기아차그룹 회장)도 같은 날 알마즈베크 사르세노비치 아탐바예프 총리에게 여수엑스포 개최를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대표단은

이번 주 파리로 대거 집결해 치열한 막판 득표전을 벌인다. 한덕수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나라 대표단은 23일 파리에 도착해 BIE 대표들을 초청한 가운데 '한국문화의 밤 행사'를 여는 데 이어 총회 직전까지 일대일 접촉 방식으로 회원국 공략에 주력한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신당-민주 통합 결렬

재협상 여지는 남아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의 통합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최인기 원내대표가 19일 양당의 통합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신당 대통합추진위원회 문희상 단장이 오늘 오후 '의결기구 구성을 대통령 신당 대 민주당이 7대3의 비율로 재조정하지 않을 경우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며 "이를 통합

협상의 결렬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대통합신당측은 이날 재협상에서 ▲합당 정당의 의결기구 구성 비율을 기존 협상안인 대통합신당 대 민주당 5대 5에서 7대3으로 재조정할 것과 ▲내년 6월로 예정된 전당대회 시기를 앞당겨 대선 이후 곧바로 실시할 것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전대 개최시기 조정 요구만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해 협상이 난항을 겪어왔다.

한편, 민주당 이인제 대선 후보는 20일 오전 10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통합 협상 결렬과 후보단일화 논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유망학원 장학 2007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http://www.nab.ac.kr

전남과학대학
http://www.jstn.ac.kr

문화수도 일자리 만들기 워크숍

23일 오후 2시 광주 시청자미디어센터

문화수도 광주에 '문화·관광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광주일보사는 광주·전남 행복발전소(소장 김한배)·희망제작소(소장 박원순)와 함께 그 실천 방안들을 모색하는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지난 10월 구성된 '문화도시 일자리 만들기 포럼'의 출범식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워크숍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일시=11월 23일 오후 2시
- ▲장소=광주 시청자미디어센터(동암지구)
- ▲1부='문화도시 일자리 만들기 포럼' 출범식
- ▲2부=워크숍
- ▷주제발표1=아시아 다문화와 문화네트워크(오계택 이주학회 박사)
- ▷주제발표2=문화관광인력 고용창출 방안(김진강 호남대 교수)

光州日報社, (사)광주·전남행복발전소, 희망제작소

innisfree